



양계업계 뉴스초점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제정

경쟁력 있는 사업 토대 마련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농가부채 특별법은 2001~2003년 상환도래정책자금 3조9천억원, 2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과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5년간, 6.5%로 대체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빛보증 농가에 특별자금을 연리 6.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연체농업인에 대해 협동조합 자율로 1천6백4십억원의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채무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농가부채 특별법은 농어업인이 새천년 경쟁력 있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회를 비롯한 21개 농민단체들이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 연대투쟁을 벌인 바 있다.

계란유통단체 협동조합 설립 추진

본회 반대입장 밝혀

본회는 최근 일부 계란유통단체에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협동조합 설립 허가건과 관련하여 농림부로부터 본회에 의견을 요청 해옴에 따라 (가칭)한 국계란유통업협동조합설립 인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동조합 설립인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도 양계정책상 유통조합은 계란유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 생산자들은 상인들의 협동조합 설립 목적이 단지 상인난가고시에 있다고 지적하고 동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오히려 계란유통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였다.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전국한우협회 공동주최 단체에 합류

금년 7월 5일~8일, 4일간에 걸쳐 COEX에서 개최될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사)전국한우협회가 공동주최 단체로 합류하면서 본회를 포함하여 5개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단체장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박람회 주제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 축산'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박람회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추진위원회는 이미 추진위원 구성 등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참고로 박람회 참가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참가비용은 독립부스(3m×3m=9㎡)의 경우 110만원이다.

육계 표준 계약서 연구사업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확대, 실시기로

본회가 정부에 연구,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육계 표준계약서 연구사업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계열주체들과 계약사육 농가들간의 계약서가 계열주체마다 다르고 마땅히 공증된 계약서가 없어 피해 발생시 서로간의 분쟁 요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면서 일부 계열업체들이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사업계획에 추가하여 보다 완벽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연구를 맡은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는 농가 설문조사 등 생산자 및 계열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본 사

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국내 사료입기 부담 증가

최근 유럽의 광우병사태로 동물성 사료의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국제 사료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기침체와 맞물려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환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료원료를 외국으로 부터 수입해야 하는 사료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사료업체에서는 사료가격을 7~8%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생산자들은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사료가격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백세미 생산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키로

금년 1~3월까지 계엄검사 실시

백세미 생산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금년 1~3월까지 백세미 생산업체들로부터 관련농가들에 대한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종계장 검사기준에 의한 채혈검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백세미 생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 따르면 종계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반면 백세미는 현행 법상 종계장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육계와 별도로 방역관리를 하기에는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으며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치 않는 종계·부화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